

한국 유학 日 여공사 “선진양궁 배워 올림픽 출전 꿈”

아와타리 아카네·이와이 타카라 등 지난3월 중순 광주여대로 양궁유학 안산 등 선배들 배려·응원이 큰 힘
日대회서 광주여대 마크 달고 출전

“드르륵, 피웅, 탁”. 21일 광주여대 실내양궁장에는 활시위를 당기는 소리와 과녁에 화살이 꽂히는 소리가 연신 울려댔다. 몇 발의 화살을 쏜 여공사들은 과녁에 꽂힌 화살을 확인한 뒤 다시 자세와 조준점을 수정해 슈팅 훈련을 계속했다.

광주여대 양궁 유학생 1, 2호인 아와타리 아카네(20)와 이와이 타카라(20·이상 무도학과 1년)가 많은 눈이 내린 이날도 쉬지 않고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다.

아카네와 타카라는 일본에서 고교 졸업 후 지난 3월 중순 광주여대로 진학한 유학생이다. 이들이 광주여대로 유학 온 이유는 선진 양궁을 배워 일본 국가대표 올림픽에 출전하려는 포부 때문이다.

오사가 출신 아카네가 광주여대로 유학을 선택한 것은 광주와의 뜻깊은 인연도 한몫했다.

중학교때 양궁에 입문한 아카네는 광주시양궁협회와 일본양궁협회 우호교류 일환으로 진행된 광주 전지훈련에 두 차례 참가하며 ‘올림픽 양궁스타’ 기보배(광주시청)와 함께 훈련하는 기회를 얻었다.

아카네는 TV에서만 봤던 기보배와 서툰 한국말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보배가 광주여대에서 꿈을 이뤘다는 사실도 알게



광주여대 양궁 유학생 이와이 타카라(왼쪽)와 아와타리 아카네가 21일 광주여대 실내양궁장에서 슈팅 훈련을 하고 있다.

되며 광주여대 유학에 대한 꿈을 키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시 교류행사는 멈췄지만 아카네는 기보배와의 추억을 되새기며 광주로의 유학을 준비했고, 과감한 선택을 했다. 틈틈히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유학에 필수 조건인 한국어 점검시험에도 합격했다.

아카네는 고교시절 양궁을 함께하며 옆에서 도움을 준 초등학교 친구 타카라와의 기특함하며 김성은 광주여대 감독과 인연을 맺었던 지도자의 도움으로 지난 3월 중순 광주생활을 시작했다.

아카네와 타카라는 낯선 환경에 적응을

했지만 광주여대·광주은행 양궁부 선배들의 도움으로 금세 적응했다.

아카네는 “처음엔 낯선 환경에서 두려움이 앞섰지만 양궁부 언니들의 따스한 배려와 응원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며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광주여대),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미선(광주은행) 선배와 함께 훈련할 때는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타카라도 “안산, 최미선 선수를 직접 실물로 보며 꿈을 꾸는 듯 했다. 따스히 말을 걸어주며 양궁에 대한 조언을 해줄 땐 너무 놀라 고맙다는 말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양궁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야간 훈련을 꼽으면서 ‘자발적인 노력’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다.

아카네와 타카라는 “양궁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광주여대 선수들과 야간 훈련을 했다. 너무 힘들었다”며 “빈 수업시간을 이용해 오전, 오후, 야간으로 이어지는 힘든 훈련을 자발적으로 소화하는 선수들을 보며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아카네와 타카라는 일본 국적이라 한국 대회에는 출전하지 못하지만, 일본에서 열리는 대회에 광주여대 유니폼을 입고

출전해 기량 향상을 꾀하는 한편 광주여대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몇차례 일본 대회에 나갔다는 아카네는 “광주여대 선수들에게는 많이 부족하지만, 함께 훈련했다는 자신감으로 실제 경기를 치르면서 나 자신의 실력이 늘었다는 것을 느껴 뿌듯했다”고 말했다.

이들을 지도하는 박현수 광주여대 양궁부 코치는 두 선수의 일본 국가대표로 성장 가능성을 전망했다.

박 코치는 “아카네와 타카라는 성격이 좋아 선수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린 것 같다. 우선은 체력이 부족한 만큼 아직까지는 기초 체력 강화 등 기본기 위주의 훈련을 하고 있다”며 “두 선수 모두 양궁에 대한 열정이나 습득력이 좋은 만큼 강도 높은 동계훈련으로 부족한 체력을 보완하고 슈팅 타이밍 등 체계적인 기술을 배워간다면 일본 국가대표도 노려볼만 하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아카네와 타카라는 목표인 ‘올림픽 출전’을 향해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아카네와 타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값진 선택을 했고 후회는 없다. 3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명문팀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안고 더 노력하겠다”며 “졸업까지 남은 기간 감독님과 코치님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팀 동료들과 열심히 훈련을 해 양궁선수로서의 목표인 올림픽 무대에 나가는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글·사진=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K3리그 준우승’ FC목포, 프로구단 관심 뜨겁다

제갈재민 제주·김희성 김포 입단
최랑·노동건·제종현 프로행 유력

2023 K3리그 준우승과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동메달 등 성과를 낸 세미프로 FC목포 선수들을 향한 프로구단의 관심이 뜨겁다. 공격수 제갈재민과 김희성은 각각 K리그1 제주유나이티드, K리그2 김포FC 입단이 확정됐고 수비수 최랑과 노동건, 골키퍼 제종현도 프로 입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복수의 축구계 관계자에 따르면 FC목포 소속 측면 공격수 제갈재민이 제주유나이티드, 최전방 공격수 김희성이 김포FC 입단을 확정 지었다. 이적 절차가 마무리 단계로 팀 합류 역시 이뤄진 상황이다.

제갈재민은 올 시즌 K3리그를 휩쓸었다. 26경기에 출장해 12득점을 터트리며 우제욱(부산교통공사축구단)과 함께 득점상을 수상했고, 베스트 11 미드필더 부문과 함께 리그 MVP를 수상하며 3관왕에 올랐다.

최고의 활약을 펼친 제갈재민은 3시즌 만에 K리그에 재입성하게 됐다. 제갈재민은 지난 2021년 전주대를 거쳐 대구FC에 입단했지만 프로 데뷔에는 실패한 뒤 김해시청축구단과 당진시민축구단에 이어 올 시즌 FC목포에서 활약했다.

김희성은 조덕제 감독의 선택으로 중앙수비수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포지션을 변경한 뒤 꽃을 피웠다. 재현고와 한남대를 거쳐 전주시민축구단, 양평FC, 부산교통



FC목포 선수단이 지난 3월18일 경기 양주고덕구장에서 열린 양주시민축구단과 2023 K3리그 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4-2로 승리를 거둔 뒤 순조로운 출발을 자축하고 있다.

FC목포 제공

공사축구단, 청주FC 등 세미프로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다음 시즌 처음으로 프로에서 활약을 준비한다.

측면 수비수 최랑과 중앙 수비수 노동건, 골키퍼 제종현도 프로 진출을 목전에 뒀다. 최랑은 K리그1과 K리그2, K3리그 복수 구단의 러브콜을 받고 있고 노동건은 K리그1 지방 구단, 제종현은 K리그2 지방 구단 입단이 유력하다.

최랑은 속도에 장점이 있는 선수다. 통진고 졸업 후 천안시축구단을 거쳐 올 시즌부터 FC목포에서 활약했고, 조덕제 감독의 권유로 측면 공격수에서 측면 수비수로 포지션을 변경했다. 목포에서는 좌측면 수비를 책임졌으며 2002년생이어서

22세 이하 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노동건과 제종현은 모두 안정감을 갖춘 중앙 수비수와 골키퍼다. 노동건은 올해 목포의 주전 수비수로 자리매김하며 리그 최소 실점 2위(26실점)를 이끌었고, 제종현 역시 베테랑다운 수비 조율과 날카로운 선방 능력으로 프로 재입성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FC목포는 조덕제 감독, 주장 박선용과 일찌감치 재계약을 체결하며 새 시즌 준비에 나섰다. 올 시즌 후반기 영입했던 측면 공격수 김다원과도 동행을 결정하며 전력을 유지했고, 추가 영입으로 전력 보강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규빈 기자

‘세계 최강’ 안세영, 말레이 오픈서 설욕 노린다

1월 9일 새해 첫 출격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21·삼성생명·사진)이 새해 첫 대회에서 설욕전을 노린다. 부상 여파로 HSBC BWF 월드 투어 파이널스 2023 준결승에서 고배를 마셨으나 말레이시아 오픈 우승으로 새해를 순조롭게 출발하겠다는 각오다.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은 내년 1월 9일부터 14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페트로나스 말레이시아 오픈 2024’ 대전을 21일 발표했다.

여자 단식 1번 시드를 배정받은 안세영은 첫 경기인 32강에서 리네 케어스펠트(덴마크·20위)와 격돌한다. 큰 이변이 없



을 경우 최소 8강부터 상위 랭커들을 만나는데 대진이다.

안세영에게 이번 대회는 설욕전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

까지 14개 대회 중 11차례 정상에 올랐던 안세영은 말레이시아 오픈 결승에서 야마구치 아카네(일본·3위)에 1-2(21-12, 19-21, 11-21) 역전패하며 준우승했다.

또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열린 HSBC BWF 월드 투어 파이널스 2023 준결승에서도 타이추잉(대만·4위)에게 1-2(21-19, 15-21, 20-22)로 역전패하며 공동 3위에 머무르며 부상 후유증 극복을 과제로 안았다.

한규빈 기자

‘아시안게임 金’ 정호연, 축구종합센터 광장 이름 새긴다

광주FC 미드필더 정호연을 비롯한 황선홍호 코칭스태프와 선수단 전원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포상금을 모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성금으로 내놓았다.

대한축구협회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황선홍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와 선수단 전원이 4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황선홍호는 지난 10월 아시안게임 3회 연속 금메달의 금자탑을 쌓았다. 대한축구협회는 선수단에 1인당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펀딩 프로그램 운영 방침에 따라 기부

에 참여한 코칭스태프와 선수단 전원의 이름이 축구종합센터 광장에 새겨진다. 팬들은 황선홍 감독을 비롯해 명재용·민동성 코치와 김일진 골키퍼 코치, 이재홍 피지컬 코치와 주장 백승호, 부주장 이재익 등의 이름을 광장 보도블록 또는 벽에서 만날 수 있다.

황선홍 감독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뜻으로 염원을 이룬 선수단이 다 같이 뜻깊은 일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 선수들이 향후 A대표팀에도 뽐혀서 축구종합센터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규빈 기자